백악관 "올가을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촉구"

▲ 미국 행정부가 올가을 코로나19 추가접종 촉구에 나선다. 사진=shutterstock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가을 모든 미국인이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미 백악관 관계자는 전날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독감 예방주사,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주사와 더불어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에서 코로나19 감염 및 입원 증가세가 포착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전반적인 감염 수준은 낮게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들은 최근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해 업데이트한 자사 백신이 이번 추가 접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모더나는 자사의 최신 백신이 코로나19 변이종인 EG.5(에리스)와 FL 1.5.1(포낙스)에 효과적이라는 초기 데이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중 에리스는 미국, 영국, 중국 등은 물론 한국에서도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지난 10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관심 변이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더해 노바백스와 화이자, 바이오엔텍 등도 면역 회피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5' 를 겨냥한 백신 개발을 완료해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대선판 "캐스팅보트로 부상"

2024년 미 대선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캐스팅 보트' 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 대선과 2022년 중간선거에서 그 역할이 확인된 데 이어 오는 2024년 대선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연합뉴스' 가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한국계를 비롯해 중국계, 인도계, 베트남계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로부터 72%의 지지율을 얻었고, 이는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아시아계 유권자는 민주당 성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미 대선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선거가 갈수록 초박빙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 이들의 투표율은 59%로, 4년 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인종별로는 라틴계를 넘어 가장 빠르게 늘어났다.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는 2천400만명으로, 향후 선거에서 큰 세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들 유권자는 조지아와 애리조나, 네바다주와 같은 경합 주(스윙 스테이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NBC 방송은 관측했다.

대선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민주, 공화 양당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총 맞아 죽은 미국 미성년 역대 최다

미국에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어린이, 청소년의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NBC 방송은 이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를 인용해 2021년 미국에서 어린이 4천752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총기사건은 교통사고와 약물 남용, 암을 제치고 전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아동·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했다.

▲ 총기 사건은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이다. 사진=shutterstock

이번 규모는 총에 맞아 사망한 아동·청소년이 4천300명이 넘었던 전년보다 9%나 늘어난 것이다. 2021년 총에 맞아 사망한 아동·청소년은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42% 급증했다.

2021년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 중 80% 이상이 19세 이하 남성이었고, 15~19세 사이의 청소년이 총기 관련 사망 사건의 82.6%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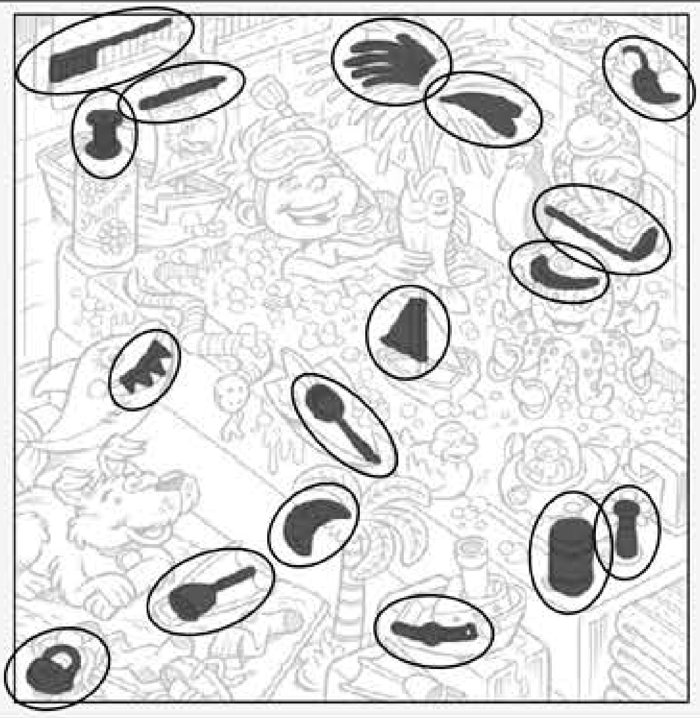
2021년에 총기로 인한 아동·청소년 사망의 원인 중 64.3%는 살인이었고 29.9%는 자살이었다. 나머지 3.5%는 의도하지 않은 부상이었다.

총기 사건이라 해도 그 내용에서는 백인과 흑인 어린이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총기 관련 살인 사건 중 흑인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67.3%였고 이 비율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총기 관련 자살 사건의 경우 백인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78.4%였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REDPOINT REALTY
미국내 상위 5% Top Agent
"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
주택/상가/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949.501.8555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 8 Corporate Park #220. Irvine, CA 92606